



미래대응기금 사업은 국가재정법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편성했습니다

< 보도내용 >

- 2026.9.29.(화) 이데일리 「미래기금 신규사업 77개 중 예타 통과는 1건뿐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핵융합핵심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(1,601억원), 소형달착륙선개발(1,063억원) 피지컬 인공지능(AI) 핵심기술개발(550억원) 등 3개 사업은 여전히 예타가 진행 중인 상태”에서 예산안에 올려졌고,
 - “‘지역균형발전장학금’ 사업의 경우 기존 ‘지역인재장학금’(연 800억원) 사업을 내년 3,280억원으로 4배 이상 늘렸고 수도권 고교 출신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자격까지 개편”하면서 “사업의 목적과 대상, 규모가 모두 달라졌음에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통과”시켰으며,
 - “‘공기업·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’ 제3조에 따라 총사업비 2,0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금 합계가 1,0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공공기관 예타를 거쳐야” 하지만, “신규 출자 사업 5건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-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'2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재정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(R&D 사업) '26.2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R&D 사업에 대한 예타 절차가 없어졌습니다. 총사업비 1,000억원 미만의 신규 R&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합니다. 또한 총사업비 1,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합니다.
- 기사에서 지적된 사업 중 「핵융합핵심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(R&D)」과 「소형달착륙선개발 사업(R&D)」은 각각 국가재정법 개정 전인 '26.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국회 심사 전인 '26.11월과 '26.10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. 예타 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는 점, 각각 글로벌 핵융합 핵심기술 및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 확보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'27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.
- 또한 「피지컬 AI 핵심기술개발(R&D)」은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추진된 총사업비 1,000억원 이상의 신규 R&D 사업으로,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.
- (지역균형발전장학금) 기존 국가장학금의 내역 사업이었던 지역인재장학금을 새롭게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.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*에 따라, 사회복지, 보건, 교육 분야 등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미만이었던 사업이 예타 대상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었을 때 그 대상이 됩니다. 교육분야 사업인 지역인재장학금의 '26년 예산은 800억원으로 예타 규모 이상이므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* 제50조(총사업비의 관리)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(이하 "타당성재조사"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

○ (공공기관 출자)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」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.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부출자금을 활용하여 추후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를 실시할 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.

* 공기업·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(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)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2,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,000억원 이상인 신규(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이 투입되기 이전 상태)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.

□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과 '27년 예산안 사업의 절차 이행 여부를 충실히 설명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김정애 (044-214-2330) 하치승 (hcs017@korea.kr)
	과학기술혁신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전보람 (044-214-2770) 이미숙 (leemisuk@korea.kr)
	인적자원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최진광 (044-214-2530) 이한결 (gksruf14@korea.kr)
	타당성심사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강미자 (044-214-3310) 최현화 (hyunhwa@korea.kr)